

1. “마당” 이야기에 들어 가면서

마당의 始作
그것은 마당의 끝이다.

마당은 모두의 가슴에 살아있다. 그 마당은 그리움으로, 추억으로 그리고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으로 남아 여전히 숨쉬고 있다. 우리가 자라면서 마당을 밟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마당을 지날 때 맨발에 다가오는 그 바닥(흙)의 감촉이 더욱 좋았다는 소중한 기억도 지금까지 갖고 있다. 또한 사계절에 따라서 변하는 마당은 그때 그때마다 다른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며, 집안의 대소사로 인한 마당의 역할과 기능은 그 자체가 인생의 무대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 마당에서 태어나고 살아왔다. 지금 우리의 마당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다만 과거의 한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남게 되었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기 까지에 이르렀다. 이제—그렇게 좋았던 마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음을 모두는 알고 있다.

한국전통 주거공간의 구성원리 (1)

A Study on the Structural Principle of Madang
Based on Korea Traditional Dwelling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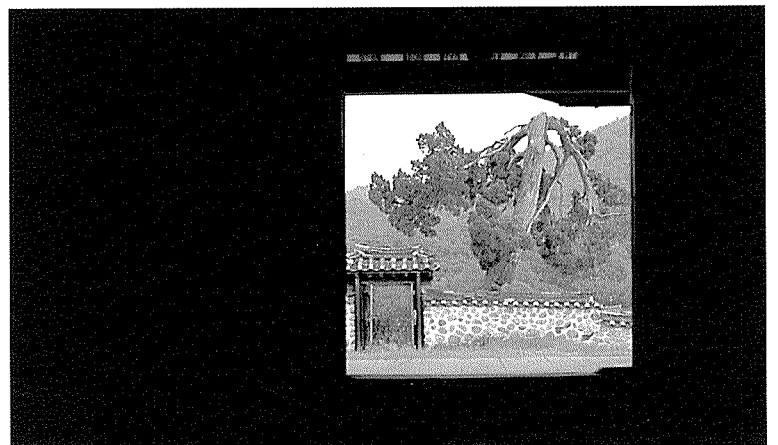
최동호 / 예전건축사사무소
by Choi Dong-Ho

1. 이야기에 들어 가면서
2. 마당의 개념
 - 2-1. 마당의 정의
 - 2-2. 채와 마당의 분화
 - 2-3. 마당의 분류
3. 전통주거 마당의 주거원리
 - 3-1. 마당구성 특성원리
 - 3-2. 마당구성 원리분석
 - 3-3. 채와 마당의 구성원리
4. 전통주거 마당의 형태원리
 - 4-1. 마당의 유형분석
 - 4-2. 마당의 형태원리
 - 4-3. 마당의 규모
맺음말

비어있음의 마당- 傳統住居의 마당은 비어있기 때문에 存在한다. 그 빈공간은 여백으로 남겨져 있으나 곧 채워짐을 의미한다. 처음에는 하나의 마당(안마당)으로써 출발하여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다. 빈부분도 많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 때문에 우리의 마당은 그 종류가 대단히 많다.

채와 어우러지는 마당- 마당은 (빈)채와 더불어 (빈)마당의 공간이 함께 존재한다. 그것은 한쌍을 이룬다. 채는 마당보다 먼저 생긴다. 마당은 채의 분화로 인하여 저절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마당은 나중에 자리 잡는다. 채와 함께하는 마당은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이 되었다. 쉼을 갖는 마당- 마당은 중간에 하나의 쉼을 갖고서 빈 공간들 사이((안)마당과 대청과 (뒷)마당의 3개 領域)를 貫通한다. 이 빈 것은 공간의 흐름(氣)을 물고가는 “휘모리 空間性”을 갖는다. 이것은 안에서 밖으로의 에너지를 갖으며 열린공간이 되게한다. 흙의 마당 - 전통주거의 마당은 결국 “빈것과 自然”이 하나로 만난다. 이 둘은 모두 비어있다.

이 빈공간성은 마당에서 시작되어 자연으로 휘몰고 간후에 다시 마당으로 되돌아온다. 이 정신적인 공간의 맥이 지금까지 지켜져 내려온 것이다. 전통주거의 마당은 “있는 것”(存在)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향단의 사랑마당. 안마당에서 사랑마당으로서의 열린 공간은 사간에 사랑대청의 쉼을 갖고 있다. 그 열림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움”의 의미 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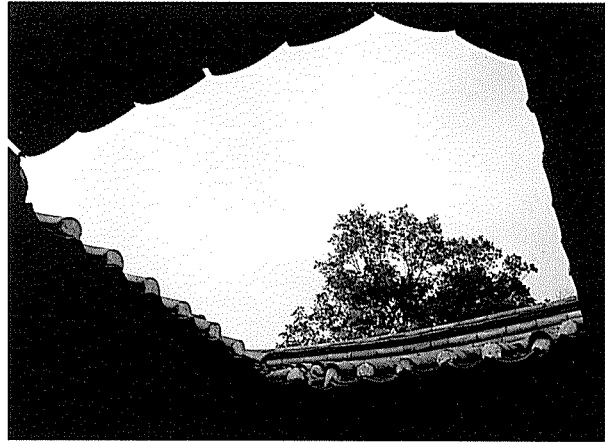
것”(所有와 存在)이다. 그래서 흙의 바닥을 가지고 있다. 그 땅은 생명을 의미 한다. 지금과 같은 콘크리트의 포장은 땅의 숨을 끊어지게 한다. 흙은 대지이고, 그 흙을 가진 마당은 작지만 작지 않은 땅으로서 어머니의 품을 닮기도 한 우리의 고향이다. 흙은 처음에 우리가 나온 곳이고 나중에 돌아갈 곳으로서 남게된다.

(1) 연구의 목적

韓國 傳統住居空間 考察의 시작은 대체로 한반도의 新石器 時代인 B.C. 3,000년경으로 推定되고 있으며, 이 시점으로 본다면 유적지로 나타나는 半地下 竪穴住居의 터로서, 내부에는 원형에 가까운 平面을 갖는 構造가 될 것이다. 보통 집의 바닥은 지표면 아래 30~100cm로서 형성되었으며 이 당시는 외부 기온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寒暑나 風雨를 피하기 위하여 민감한 準備를 하여야 하였다. 中央에 火爐를 두어서 취사와 난방에 사용하였으며 그 주변은 저장 구멍을 만들었고, 공간의 구성은 單室이었으며 이런 농경 생활은 점차 불편함에 따른 기능을 구분¹⁾하는 공간 분화를 의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국 주거사에서 나타나는 주거의 기능 분리(단실 주거 속에서도)는 건축 胎動이란 면에서 空間의 “작은分化”라는 의미로서도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이런 분화의 出發은 그후에 채(棟)의 분화라는 한국 전통건축의 독자적인 마당 構成으로 까지 連結 되었음을 볼 때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채와 마당의 구성은 하나의 같은 틀로서 보아야 하는 것 때문에 채와 마당을 별도로 보이서는 안되는 한국적인 固有한 特性을 갖고 있다. 따라서 현대건축 속에서의 마당과 채와의 개념은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닌 함께 구성(채앞에 마당)해야 하는 설계 방법론이 필요 할 것으로 보여 진다. 현대건축에서 나타나고 있는 마당은 대체적으로 비어있는 부분의 공간의 내용, 마당과 정원의 불분명한 혼합된 상태이거나, 포장된 주차장이나 일부의 식재로서 대치되고 있는 모호한 내용으로서 처리되는 것이 그 현실이다. 마당의 그 기능상의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마당의 성질을 폐쇄적인 공간 처리의 한 산물로만 취급해서는²⁾ 안될 것이다.

마당을論하는 것은 곧 채(棟)를 指稱하는 것으로서, 안마당은 “안채와 안마당”을 말하며 사랑마당은 “사랑채와 사랑마당”을, 행랑마당은 “행랑채와 행랑마당”을 일컫는 것이었다. 마당은 독단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생겨난다. 채와 더불어 채의 분화에 의해서 마당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본 연구에서 마당의 개념은 채와 더불어 구성되기 때문에, 안채와 함께 동반되는 口자형 平面의 마당은 당연히 안마당으로 하여 중정과는 구별하였다. 현대건축의 住居에서도 마당은 필요한 것이며 應用해야할 必要 不可缺한 要素임에 틀림없다. 전통마당의 原理構造는 대단히 복잡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요소들을 構成原理的인 側面에서 마당 공간의 특성을 분석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배경을 통하여 本 主題는 그 空間性과 構造的 秩序에 나타난 “마당의 構成原理”와 “形態原理”를 찾아내어 現代建



향단의 앞마당에서 본 하늘. 마당이 비어있음은 하늘도 비어있음이다.



연경당의 앞마당. 안마당은 치장하지 않은 흙의 바닥이다.

築에 應用할 한 方法論의 틀을 마련함에 그 焦點을 맞추면서

1) 마당의 구성원리 가운데에서 마당의 특성을 分析하고 구조적 원리 파악은 물론 6마당이 갖는 의미와 그 形式 그리고 채와 마당이 갖고 있는 關聯性을 통하여 各 各의 마당이 상호 연결되는 관계를 여러 가지 類型分析을 통하여 그 구성의 기본적인 形式을 알아보며

2) 마당의 규모는 물론 그 型을 분석하여 각 채에 의한 마당이 어떤 유형을 갖게 되는지를 알아본 후, 그 마당들의 원형을 제시하며 어떤 원리를 갖고 형태 구성을 하게 되는지 그 범위를 抽出하고 마당의 적정한 크기를 算出하여 韓國 傳統 住居 空間의 마당 構成 原理를 파악하여 보는데 그 目的이 있다.

(2) 연구의 범위

한국 전통주거 마당의 事例 가운데에서 아직 유구의 상태가 좋아 分析의 進行에 문제가 없는 家屋중 조선시대의 傳統住居로 그 範圍를 정하였으며 또한 마당의 규모를 인지할 수 있는 주택(班家)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또한 총체적인 범위로서의 住居 問題를 다루다 보면 채(棟)의 平面構成이나 구조적인 原理를 함께 다루어야

1) 朴彥坤, “韓國建築史講論”, 文運堂, 1993, 26쪽.

2) 鄭寅國, “韓國建築樣式論”一志社, 1991, 377쪽.

하는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되기 때문에 본 주제는 채와 동반되는 마당의 원리를 주 내용으로 하는 마당구성의 構造原理와 形態類型的 導出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대상 家屋은 현존해 있는 주택 마당의 원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을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15세기의 孟氏杏壇을 시작으로 하여 김기응家屋의 1900년대까지의 五白餘年에 걸쳐진 住居의 마당구성 원리에 관한 研究를 그 범주로 하였으며, 선별된 가옥은 朝鮮時代의 초기부터 16세기말 이후 中期에 확립되었던 儒敎思想의 영향권 아래에서의 주거로서 조선후기까지의 가옥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時代的 상황은 주거 형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禮의 重視를 통한 계급사회가 그 배경이 되었으며 특히 남녀 유별의 공간구분으로 나타나는 안채와 사랑채의 내외법으로 인한 채(棟)의 구별은 전통적인 공간구성의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채는 폐쇄적인 공간으로 안마당이 중심이 되는 구심적인 역할을 하는 口字형의 평면으로 口字형의 마당이 形成되었다.

〈표 1-1〉연구대상 가옥

| No. | 가옥명 | 건립시기 | No. | 가옥명 | 건립시기 |
|-----|---------|--------|-----|---------|--------|
| 01 | 孟氏杏壇 | 15세기 | 02 | 孫東萬家屋 | 1458년 |
| 03 | 醴泉權氏宗宅 | 15세기말 | 04 | 낙선당 | 15세기말 |
| 05 | 이원용가옥 | 15세기말 | 06 | 이회태 家屋 | 15세기말 |
| 07 | 臨淸閣 | 1515년 | 08 | 義城金氏大宗家 | 16세기 |
| 09 | 獨樂堂 | 16세기초 | 10 | 觀稼亭 | 16세기초 |
| 11 | 香壇 | 16세기초 | 12 | 무침당 | 16세기초 |
| 13 | 忠孝堂 | 17세기초 | 14 | 養眞堂 | 17세기초 |
| 15 | 義城金氏小宗家 | 17세기경 | 16 | 禮安李氏宗家 | 17세기경 |
| 17 | 尹善道家屋 | 17세기 | 18 | 同春堂 | 17세기 |
| 19 | 霽月堂 | 18세기초 | 20 | 宮집 | 18세기초 |
| 21 | 朴堽家屋 | 1747년 | 22 | 尹拯古宅 | 1767년 |
| 23 | 雲鳥樓 | 1776년 | 24 | 金東洙家屋 | 1784년 |
| 25 | 金東岡家屋 | 1786년 | 26 | 鄭在永家屋 | 18세기중반 |
| 27 | 정병호가옥 | 18세기 | 28 | 秋史古宅 | 18세기말 |
| 29 | 呂卿九家屋 | 18세기말 | 30 | 金榮龜家屋 | 18세기말 |
| 31 | 演慶堂 | 1828년 | 32 | 船橋莊 | 19세기초 |
| 33 | 臨境堂 | 19세기초 | 34 | 北村宅 | 19세기중엽 |
| 35 | 김기응家屋 | 1900년대 | | | |

유교적 봉건사회의 질서가 해체되는 조선후기까지도 조선시대의 全 過程속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쳐온 儒敎思想 때문에 모든 마당 구성 분석을 시대의 구분없이 같은 脈絡으로 보아도 무방하리라고 생각된다.

研究 對象의 표본 家屋은 〈표 1-1〉에 나타난 35개 가옥으로 하였으며 마당의 원래의 모습이 변질된 것을 추

3) 徐有, "林園經濟志", 《瞻用志》, 민속원, 1991.

4) 朴彥坤, "韓日傳統造景共同研究論集" 1992, 4쪽.

5) 分化의 意味(『동아세국어사전』, 동아출판사)

1. 하나의 것이 진보 발달하여 복잡해짐에 따라 여러 이질적인 부분으로 갈라지는 일.

2. 생물체의 조직이나 기관이 특수화의 방향으로 잘게 갈라져 발달하는 일.

사전의 정의에서 살펴보면 1과 2의 의미를 합친 "이질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지는 일"과 "특수화의 방향"의 두가지를 함께 지니고 있는 종합적인 해석으로 보아야 할것임.

정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는, 원형의 배치가 도면에 의해서 확인이 가능하면 가옥의 일부 채가 消失 되었어도, 그 터의 위치가 變形 또는 變質되지 않았다면 연구의 대상에 포함 시켰다. 특히 채의 구성에서 間의 모양이 바뀐 것은 본래의 도면을 참조하였다.

2. 마당의 개념

2-1. 마당의 정의

한국 傳統建築에서 마당의 정의는 徐有(1784-1845)의 "林園經濟志" 16권으로 구성된 이 문헌의 9권인 섭용지(瞻用志)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住宅을 중심으로 하는 建築과 住居生活 도구 설치 제작법을 기록하고 있다.

庭除편에는 "三善"이라고하여 마당의 機能과 형상을 잘 表現하고 있다. 그 原文³⁾을 보면 "凡治庭除, 有三善三忌, 高下平正, 無凹凸仄窪, 易於水, 一善也. 牆院不逼, 可以受日光 列花盆 二善也. 四隅平直, 無歪邪回曲 三善也. 反於此者 爲三忌."라고 되어 있음을 (마당을 꾸미는데에는 3가지 옳은점과 3가지 피해야 될 점이 있다. 일선으로는 높낮음이 편평하여 울퉁불퉁함이 없고 웅덩이가 없어 물이 잘 스며야 한다. 이선으로는 채광을 받고 화분을 놓을수 있도록 마당과 담장이 가까우면 안된다. 삼선은 네귀가 直角으로 직선이어야 하고 구부러지거나 곡선은 없어야 한다.) 알 수 있다.

한국 전통주거에서의 마당의 역할은 班家는 물론 民家까지도 주택의 내부공간과 함께 마당이 어우러짐으로서 그 特性을 발전시켜 왔다. 중국의 마당은 바닥을 전돌로 포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돌 사용이 어려울 때는 자갈을 사용하여 무늬⁴⁾를 만들기도 하였던 것과는 다르게, 韓國의 住居인 경우에는 채의 분화로 인한 각각의 고유한 마당을 소유하였고 마감은 치장이 아닌 흙마감으로 되어 있어 흙의 바닥이 되었다. 섭용지에 나타난 마당의 고유한 기능과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動線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마당이 된다. 안마당을 통하여 안채를 출입해야 함은 물론 각 房의 출입은 마당이라는 空間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각 室들은 직접 외부와의 연결이라는 매우 특수한 한국적 상황으로 인하여 마당은 반내부적 성격을 소유하게 되었다. 마당은 연결 동선의 역할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그러하기 때문에 흙마당은 편평한 땅이 되어야만 한다.

2) 作業과 生活空間의 마당이다. 앞마당은 물론 옆마당이나 뒷마당의 생활공간으로서 활용이 높아 마당은 그 기능이 강화되었다.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배수가 잘됨은 물론 물웅덩이가 없어야 한다.

3) 適正한 크기로서의 마당이 되어야 한다. 우선 通風과 採光의 문제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알맞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 아울러 마당은 너무 크거나 작아도 안된다. 적당한 비례감을 가진 안마당의 크기에서 마당의 中心이 있다고 보았다.

4) 네모진 形態의 마당을 이룬다. 마당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폐쇄적인 안채의 안마당은 그

형태가 네모진 四角形의 마당을 構成해야 한다. 원형이나 타원형은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에는 부적절하다. 이상과 같이 庭除편에 나오는 三善의 定義는 마당의 가장 적정한 性格, 規模, 形態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2-2. 채와 마당의 분화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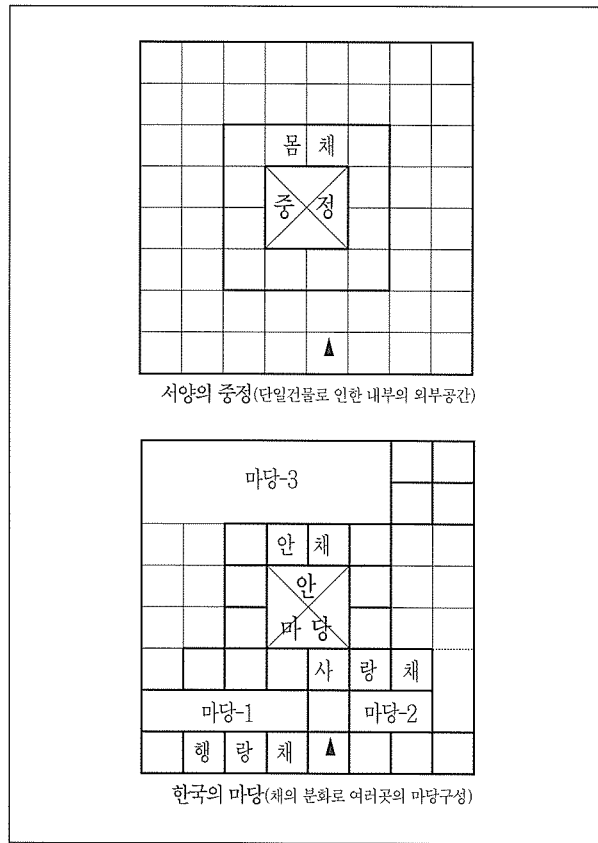
韓國 傳統 住居의 채의 發生 과정에서는 靑銅器 時代에 이미 공간의 分化가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역사적인 자료의 상태가 많이 남아있는 朝鮮時代 傳統주거에서는, 채가 완전하게 분화되어 그 과정의 모양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마당과 채의 구조적인 원리 파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채와 마당의 분화 과정을 알아보면 채의 根幹을 이루고 있는 안채와, 사랑채는 엄격한 內外法으로 독립된 채(또는 한몹채 속의 각채)를 구성하며 각각의 마당을 갖게 된다. 채의 中心이 되는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 등의 주요 3채는 채(棟)가 분화될 때 棟구성 형식에 의해서 別棟형, 口字形, 혼합형⁶⁾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일체형이라고 할 수 있는 口字形이 別棟型으로 분화되는 과정은 “여러부분으로 나누어지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안채와 사랑채가 하나의 몸체에서 떨어져나와 분화되는 과정이 발생하여(조선중기 이후부터) 사랑채를 비롯하여 행랑채, 고방채, 별동채, 사당 등으로 채의 분화를 갖는다. 이것은 외부공간 구성 방법에서 서양건축이 단위 건물⁷⁾로 이루어져 空間을 갖는 것과는 달리, 한국 전통 건축의 住居空間에서는 채의 분화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마당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면 채는 왜 분화되지 않으면 안되는가, 또는 그 배경 속에는 어떤 과정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理由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채가 분화되는 시대적, 문화적, 경제적 배경과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갖는다. 첫째는 유교사상으로 인하여 間의 分化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유교는 행동의 규범과 사회의 질서로서 인간관계 가운데 君臣間, 夫婦間, 父子間 등의 모든 근본은 서로 다른 위치에서 禮를 지키는 것을 그 기본으로 하였다. 이런 유교의 精神이 토대가 되어 孝의 思想으로서 間의 分化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유교의 도입이 언제부터인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삼국시대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대단히 역사가 깊은 思想임에는 분명한 사실로서 받아들여 질 수 밖에 없으며, 조선시대의 사회윤리로서 지배 계층에서 일반 민중에 걸쳐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이런 사실들은 건축 공간의 구조에도 당연히 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채의 구조는 禮를 바탕으로 하여 그 위계 질서가 세워지는 매우 규칙적인 평면의 구조가 형성되었다. 특히 西洋(메소포타미아, 중세 이슬람, 이

(표 2-1) 階級の 分化에 의한 마당 位置

| 空間의 分類 | 채(동)의 區分 | 出入口 | 階級 | 마당 |
|--------|----------|------|----------------|-----------|
| 상의 空間 | 안채, 사랑채 | 솥을대문 | 上位階級으로 지배적인 지위 | 안마당, 사랑마당 |
| 중의 空間 | 중문채 | 중문 | 中間階級으로 上下의 連結 | 중문마당 |
| 下の 空間 | 행랑채 | 행랑문 | 下位階級 | 행랑마당 |



(그림 2-1) 韓國과 西洋의 外部空間(마당과 중정) 構成體系

집트, 그리스, 로마 등의 중정주택)의 중정과 는 달리, 전통마당은 채의 분화라는 과정속에서 마당이 형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둘째는 男女 空間이 나누어지는 性的 分化가 이루어졌다. 이 시대 주택은 申酉정책에 의한 커다란 영향 아래 男女間의 性的 구별에 의한 공간이 분화되어, 남성의 공간인 사랑채, 여성의 공간인 안채를 다르게 하였다. 이런 엄격한 內外法으로 한 家族이 사용하는 측간도 남성은 외측 여성은 내측을 사용하였다. 사랑채와 안채의 출입문은 솥을대문과 평대문으로 하여 男女 구별을 위한 男尊女卑 思想을 심하게 나타내었으며, 또한 서민의 경우에도 안방과 사랑방으로 그 거처를 달리하게 하여 남녀의 區別을 심하게 하였다. 이러한 구별은 결국 공간의 분화와 아울러 채를 분화시키는 요인을 가져오게 되었다.

셋째로는 계급의 分化이다. 조선시대 신분제도는 계급 사회의 규칙이 지켜졌기 때문에 신분의 계층과 지위의 高下에 따라서 주거의 규모 제한이 있어서 법전에서는 그 제한을 두었다. 또한 공간채를 두는 것은 그 地域에서 경제적으로 지배적 지위⁹⁾를 나타내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었다.

6) 崔 壹, “朝鮮 中期以後 南部地方 中上流住居에 관한 研究”, 서울대 博論, 1989, 39쪽.
 7) 朴彥坤, 앞책, 6쪽.
 8) 崔榮基, “儒敎思想이 住居空間에 미친 影響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論文集, 1995, 4, 185쪽.
 9) 鄭寅國, 앞책, 373쪽.

또한 같은 주거내에서도 上·下位 계급의 分명한 秩序가 유지 되었다. 즉 안채 사랑채는 상의 공간으로서 上位계급이며, 행랑채는 下位계급 그리고 중문간 행랑채는 中間계급으로 上下를 연결하였다.

채와 마당의 분화는 이러한 여러가지의 要因 등으로 건축 주거공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침은 물론 전통주거 속에 한 획을 긋는 “채와 마당의 분화”라고 하는 고유한 전통의 형식을 갖추게 된 것이다.

2-3. 마당의 分類

전통 주거에서 나타나고 있는 마당은 각 채에서 분화된 間(房)에서 직접 外部로 연결되기 때문에 “動線의 기능과 作業공간의 역할”로서 그 要諦를 이루고 있다. 班家の 마당은 “內部空間으로서의 外部空間” 성격을 갖고 있는, 안에서 다하지 못한 일을 밖에서 해야하는 뜻을 갖기 때문에 현대적인 마당의 屬成과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마당이 편평해야 하는 까닭은 그 속성-동선의 통로와 작업의 편리함이 갖는 고유한 意味이며, 각각의 마당은 이렇게 확실한 기능을 소유하며 마당이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채와 더불어 함께 存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당이 흠바닥이어야 됨은 마당의 속성가운데 하나인 중심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작업공간으로서 용도가 포장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안마당은 마당의 중앙을 중요하게 여기는 象徵性을 가지며 동시에 外部空間의 기능을 충족시키는 場所라는 개념의 두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격을 갖는 마당은 사실 대단히 많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 그 이유는 유교사상에 의한 가족제도에 따른 많은 채(棟)의 요구, 내외법의 공간구분, 신분제도, 조상숭배의 사당 공간 필요, 외부공간 기능의 강화 등으로 볼 수 있다. 마당의 수효와 종류는 이렇게 많이 늘어 날 수 밖에 없었다.

마당의 종류를 채에 의해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 6채(안채, 사랑채, 행랑채, 고방채, 별당채, 사당)중 첫 번째 행랑채 領域에서 행랑채는 1) 바깥마당, 2)행랑마당, 곳간채에는 3) 곳간마당, 중문채에 4) 중문마당이 있고, 두 번째 사랑채 領域에는 5) 사랑마당, 6) 사랑옆마당, 7) 사랑뒷마당, 8) 셋마당, 9) 정원 등이 있으며, 셋째로 안채 領域에는 10)안마당, 11) 옆마당, 12) 뒷마당, 13) 후원 등이 자리하며, 네 번째의 고방채 領域에는 14) 고방마당이 있고, 다섯 번째로 별당채는 15) 별당마당과 16)정자가, 그리고 끝으로 여섯 번째는 사당채에 17) 사당마당이 있다.

즉 마당의 종류는 17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으며, 채로 구분하면(주택의 경계 領域으로 볼때) 여섯채에 의한 여섯마당 속에 다시 16개의 마당이 분류된다. 이와 같이 마당은 그 채에 따른 기능에 따라서 대단히 많은 종류의 마당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채(棟)의 分流에 의하면 마당의 위계와 領域이 확실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여섯(6)채에 의한 16마당으로 그 종류를 分類하여 놓았다. 아울러 바깥마당은 주택 외부의 마당으로 보기 때문에 16마당의 범위에는 속하지 않고 住宅 外 마당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반채마당(선



윤선도 家屋의 바깥마당. 이 집의 시작이다.

교장) 등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 붙여지는 마당의 종류는 예외의 마당 분류에 삽입하였다.

여섯(6)마당을 다시 領域별로 구분하면 행랑마당, 사랑마당, 안마당, 고방마당, 별당마당, 사당마당으로 나눌 수가 있다. 본 연구의 범위도 여섯마당으로 하여 주거내의 마당구성 원리를 분석하는 것으로 하였다. 마당은 크게 주택 內·외의 領域으로 구분되고 주택내의 마당에 여섯마당이 포함되며, 주택 外의 마당은 동네라는 마을의 범위로 확대되기 때문에 그것은 주거내의 마당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바깥마당의 범주도 주택 內외의 境界에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도 포함시킬 수가 있지만 본 研究에서는 주택 外의 마당으로 구분만 하기로 하였다. 주택외의 마당 분류로는 동네마당, 우물마당, 마을어귀 공동마당 등이 있다.

(1) 住宅 外 마당

바깥마당은 주택 外의 空間으로서 다른 마당과는 달리 매우 중요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는 領域(주택의 경계)의 認知공간이다. 마을에서 진입하여 주택으로 들어올 때 最初로 울타리의 범위를 알 수 있는 주택 外의 外部空間이다.

이 구역은 건물의 전면에 위치하는 주택 內部에 속한 마당과는 그 성격이 다른 순수한 바깥 공간으로서, 주택내의 半內部的인 性格도 없는 곳이다. 이곳은 주택 내부를 內部가 아닌 外部에서 인식하는 바깥이 된다. 두 번째로는 주택의 규모를 짐작 할 수 있는 장소이다.

건물의 前面에 노출된 행랑채의 크기(길이)를 가지고 전체 주택의 규모를 가늠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도 한다. 선교장이나 김동수가옥, 임청각 등의 행랑채를 보고 그 앞에 나타난 입면으로 충분히 그 집의 범위를 짐작할 수 있는 예가 된다. 주택의 내용(채의 구성이나 마당의 범위)을 보는 한가지 방법으로 외부의 바깥마당에서 그 집을 파악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다. 끝으로 주택 경계(대문과 연못, 나무 등)의 시작점이다. 안마당을 중심으로 하여 축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바깥마당에 있는 대문의 위치를 보고 그 집의 배치와 境界를 알 아볼 수도 있다. 솟을 대문이 경계의 시작을 알리는데 매우 좋은 表示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바깥마당은 대체적으로 가옥의 울타리를 인식케 하는 장치가 놓여져 있

〈표 2-2〉 6채(棟)와 마당영역(주택內 마당)의 關聯性

| 마당종류 | 채의구분 | | 6채(棟)의 分類 | | | | | | 비 고 | |
|-------|------|---------|-----------|-----|----|-----|-----|-----|---|--|
| | | | 행랑채 | 사랑채 | 안채 | 고방채 | 별당채 | 사당채 | | |
| | | | 1 | 2 | 3 | 4 | 5 | 6 | | |
| 주택外마당 | 1 | ※바깥마당 | ● | | | | | | ※바깥마당은 주택의 내외의 경계선에 있는 마당이라고 볼 수 있다. 주택외의 마당은 바깥마당을 기준으로하여 동내로 영역을 넓힌다. 이 表의 關聯性은 바깥마당을 제외한 나머지의 마당은 담으로 구획된 주택內 마당의 분류이다. *정원과 후원은 마당과는 전혀 다른 개념(마당은 포장되지 않은 흙바닥이고 대체로 나무는 심지 않는다.)이지만, 외부공간의 범주속에 함께들어 있기 때문에 영역별 분류로서는 같이 볼 수 있다. | |
| 주택內마당 | 1 | 행랑 마당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4 | 사랑 마당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8 | | *정 원 | ● | | | | | | |
| | 9 | 안 마당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13 | | 고 방 마 당 | | | ● | ● | | | |
| | 14 | 별당 마당 | 별당마당 | ● | | | | ● | | |
| | 15 | | 정 자 | ● | | | | ● | | |
| 16 | | 사 당 마 당 | | | | | | ● | | |

는 출발이 된다. 연경당에서 커다란 방지를 설치한 것은 바깥마당의 시작점이며 주택마당의 최초 출발점이 된다. 해남 윤선도가옥의 느티나무도 이 집의 첫 걸음이 되는 것이다.

(2) 住宅內 마당

주택내의 마당으로서 여섯마당은 행랑마당, 사랑마당, 안마당, 고방마당, 별당마당, 사당마당이 있으며 기타 특별한 용도에 의한 마당도 있다.

첫번째(1)의 행랑마당의 영역에는 행랑마당, 곳간마당, 중문마당이 있는데, 주택 내의 마당으로 처음의 공간이 되는 마당으로서, 바깥마당을 통하여 (솟을) 大門을 들어서면 보통 행랑채 앞에 위치하는 공간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이 바로 행랑마당이 된다. 행랑채가 보통 사역인들의 거처와 마굿간 창고 등이 배치되기 때문에 주로 옥외 작업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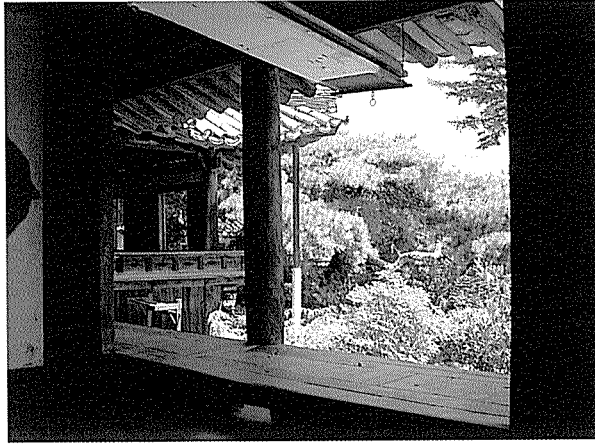
이 부분은 비워두는 경우가 많고 여러가지 용도로 활용되는 多目的 공간이 된다. 행랑채와 대문간, 담장 등에 둘러싸여 때로는 내객의 종자나 차마를 놓기도하는 수납공간이 되기도 한다. 행랑채에는 장작광이 있기도 하는데 여기서 장작을 패기도 하며 안채 주위의 장작광으로 옮기기도 한다. 또한 행랑마당을 통해 사랑마당을 출입하는 연결 동선이 되기도 하는 완충역할을 하는데 선교장이나 충효당같은 마당의 경우에는 사랑마당과 함께 분명한 공간의 구획이 없는 경우도 있다. 다음 곳간마당은 별동의 곳간채를 두는 경우로써, 慶州의 崔植氏家屋은 천석 곳간을 두고 있으며 이 마당은 행랑마당의 면적만 가지고는 물론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마당을 필요로 하여 넓은 곳간마당을 두고 있다. 끝으로 중문마당은 안채를 보호하는 차단공간으로써 보통 안채앞의 중문간채에 놓여있어서 마당 속의 마당을 구성하는 주 거 마당 속에 위치한다. 안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문마당을 거쳐서 진입하게 된다. 두 번째(2)의 사랑마당 영역은 사랑마당, 사랑옆마당, 사랑뒷마당, 셋마당, 정원 등이 있다. 그 가운데에서 사랑마당은 보통 전면부

사랑채의 앞에 위치하거나 행랑마당을 통해 접근하게 된다. 별동으로 되어 있을 때는 사랑마당의 구성이 前後左右로 되어 꽤 많은 부분의 마당面積이 차지하게 된다. 안마당과는 달리 접객 공간이며, 물론 남성의 공간으로서 婚禮와 같은 큰일이 생겼을때나 그의 집안의 大小事가 있을 때에는 내부공간의 연장으로서 그 기능을 담당하며 차일 등을 쳐서 확장된 공간을 마련하기도 한다. 造園공간으로서의 사랑마당은 주인의 격과 취향에 따라서 주위 환경을 꾸미는데, 담밑으로 몇 그루의 나무를 심고 석연지에 물을 담아 연을 키우기도 한다.

경북 묘동의 박황씨가(달성 三可宅)는 사랑채 앞에 3 그루의 석류나무를 심어서 부귀를 가져 온다고도 하였다. 사랑마당의 옆이나 뒷부분은 사랑채가 별동으로 되는 경우에는 좌우 또는 후면에 반드시 여유공간이 필요하게 된다. 정원은 보통 사랑마당의 부근(앞, 옆등)에 위치하며 마당의 영역과도 분명한 구획을 하여 나누고 있다. 정병호家屋 사랑마당, 셋마당은 명확한 구획(담이나 채에 의한)이 있다. 김기용 가옥의 경우는 사랑채 뒤에 크지는 않지만 상징적인 중심이 되기도 한다. 안마당과 사랑채로 통하는 완충적인 통로의 역할을 하며 사 이 공간으로서 뚜렷한 의미를 지닌다. 세번째(3) 안마



정병호 家屋의 사랑마당.



정병호 가옥의 사랑채는 진출한 구조로서 내려다 볼수있도록 造山을 만들었다.



재월당 안마당



김기응 가옥의 뒷마당. 은밀함과 여성의 전통적인 카타르시스적 공간이다.



동춘당 별당마당.

당 영역은 안마당, 옆마당, 뒷마당, 후원으로 나눌 수가 있다. 안마당은 폐쇄적인 공간으로서 마당의 中心이 되며 주택의 상징적인 중심부도 된다. 안채의 앞에 위치하며 보통 口자형태로 모양을 형성하고 안채와 연결되는 부분은 안채가 ㄷ자형태로 되고 일자의 곳간채, 사랑채 후면 등으로 둘러 싸여 있으며 내외법에 따라서 안채는 외간 남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것은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평면 자체가 비개방적인 空間을 구획을 한것으로서도 알 수 있다.

안마당의 기능을 살펴보면 첫째, 안채의 각방으로 출입하는 통로가 되며 그 動線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은 각각의 실들이 외부공간인 마당과 직접 면하기 때문에 곧바로 외부로의 연결이 가능하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기능은 안마당에 면하여 부엌이 있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위한 작업과 활동공간이 된다. 셋째로는 의식과 집회공간이다. 혼인때에는 사랑마당과 함께 의식공간이 되며, 안대청은 안마당의 空間과 더불어서 集會場이 된다. 끝으로 안마당 내부의 형태적인 문제나(口자 평면의 경우) 공간의 깊이로 보아 통풍의 기능과 아울러 공기와 빛을 제공한다.

다음 옆마당은 보통 안마당의 옆으로 구성된, 부엌으로부터 확장된 공간으로서 주부의 공간에 필요한 시설인 우물, 장독대 등이 놓여진다. 안마당과 더불어 가사노동의 장소인 이 옆마당은 명절때면 떡을 치는 반석이 놓이기도 한다. 옆마당의 개념은 사랑마당의 側面에 놓여있는 경우에 지칭하기도 하는데 사랑채의 옆을 통하여 사당으로 가는 通路의 역할로서 이용되기도 한다.

그 다음 안마당의 영역인 뒷마당은 가장 은밀한 部分으로 외부인의 出入이 거의 쉽지않은 공간이다. 섬용지의 정의에서 나타난 “높낮음이 편평하여 울퉁불퉁함이 없고—”의 내용과는 다르게 뒷마당은 보통은 경사지로서 築臺를 쌓아 단을 짓기도 하며 竹林을 이루기도 하는데 이것은 自然과의 상호 浸透性을 고려한 것이다. 안마당이 無裝飾인데 반하여 뒷마당은 墩臺를 설치하거나 석물 수목 등으로 장식을 하며, 또 다른 경우에는 장독대나 菜田 등을 놓기도 한다. 뒷마당과 안마당의 관계는 안대청의 열린공간을 통하여 서로 관통하는 영역으로 보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후원의 경우는 뒷마당과는 구별되어야 하며 김기응 가옥의 경우에 뒷마당 바로 옆에 위치 하는데 주로 휴식처로 사용되었으며 꽃과 과실수를 심었다. 후원은 마당이라고는 물론 할 수 없고 정원(사랑정원)과 함께 보아야 하는 것이지만, 주택 內의 외부공간 영역으로는 포함되기 때문에 공간의 범주에는 삼입할 수 있을 것이다.

네번째(4)의 고방마당은, 고방은 벼 및 보리 등의 곡물을 보관하는 수장공간¹⁰⁾의 부속사로서 안채와는 떨어져서 위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고방마당은 별도의 고방채 앞에 놓이게 되는데 정재영 가옥의 행랑채 옆에 위치한 점으로 보아 독립적인 마당의 역할이 필요 한 것으로 보여진다. 고방은 습기를 막기위해 지면으로부터

10) 고영훈, “慶南西部地域 民家の 調査研究”, 흥대석론, 1979, 125쪽.



손동만 家屋 사당앞 전이공간. 경건한 분위기를 유도하는 공간이 된다.

터 사이를 두며 마루 구조로 하고 벽체는 판벽으로 한다. 어떤 가옥은 고방을 실내에 설치하기도 하며, 골방에 놓이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옆마당에 고방마당이 생기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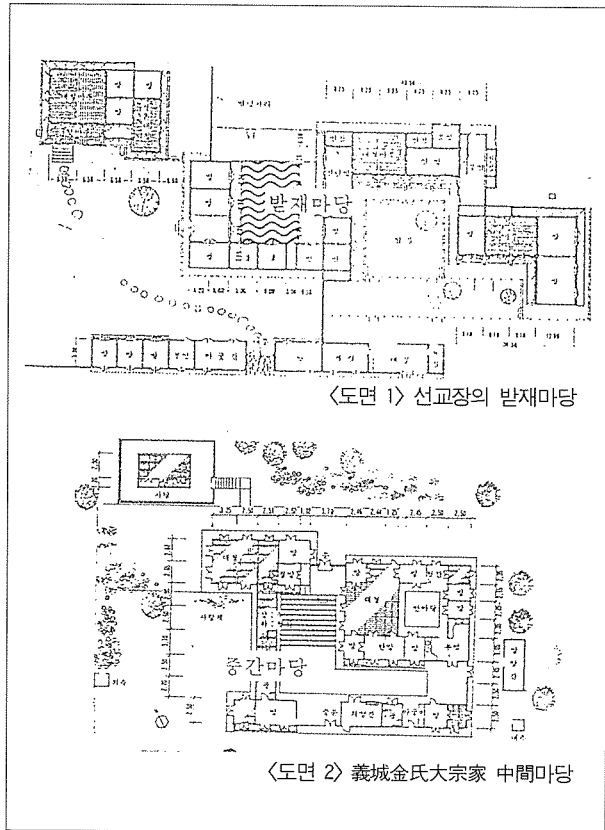
다섯번째(5) 별당마당 영역에는 별당마당과 정자마당으로 나눌 수 있다. 별당은 사랑채와 精舍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구분된다. 별당마당은 마당 空間의 의미보다는 전면에 方池를 만들어 그 가운데에는 봉래선산을 만들며 蓮을 키운다. 봉래선산은 도가에서 연유된 것으로 삼국사기 武王 35년조(634)에 연못을 構成하는 樣式이 나타난다.¹¹⁾ 별당은 “接客 讀書 閑遊 觀賞 등의 목적이 있었으므로 그 택지는 항상 이에 알맞는 景勝地를 택하고 인공 蓮塘과 築山으로 環境을 造成하기도 하였다.”¹²⁾

선교장의 活來亭은 정자로서 그 마당 공간은 방지와 봉래선산을 구성하여 形而上學的인 공간을 창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정자는 자연속에서 존재하며 개인적으로 수양하는 空間¹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마당 공간으로서의 주변환경은 자연과의 조화를 꾀하도록 하고 있다.

여섯번째(6) 사당마당은, 사당은 입지 자체가 본채보다도 위에 위치하며 전이공간인 중문앞에는 단차를 주어 사당의 독자적인 구분을 하고 있다. 후면은 보통 산이 되고 향이 가장 좋은 곳에 위치 시킨다. 사당은 口자형으로 담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四方이 닫혀있는 공간이 된다.

(3) 특별 기능에 의한 마당의 종류

가) 받재마당¹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마당은 선교장의 서별당(지금은 현존하지 않음)앞에 위치한 것으로서 이곳에서는 밖에서 정리된 財産(금전이나 곡식)을 안으로 받아 들일 때 사용되던 마당으로 그 앞의 중문채는



ㄴ자형으로 공간이 면하여 있었다.

나) 中間마당¹⁵⁾은 의성 김씨대종가의 안채 대청앞과 사랑채 침방앞에 있는 곳으로서, 행랑마당을 지나 여유 공간이 발생하는 장소이다. 이러한 공간은 하나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나 명쾌한 마당의 명칭을 부여하지 못하는 原因은 채의 확실한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통로라고 하는 개념은 마당의 고유한 기능으로서 처음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마당은 제각기 고유한 명칭을 채와 더불어 가지는 것을 본다면 이런 中間마당의 의미도 독특한 공간구성이라 할 수 있다.

다) 전이공간¹⁶⁾의 마당

완충 영역에 있는 마당으로서 사당의 중문앞에 위치하며 생활공간인 “俗의 공간”과 사당공간의 “聖의 공간” 사이에서 中間的인 성격을 갖으며 경건한 분위기를 유도하는 공간이 된다.

이러한 예는 손동만 가옥의 경우에 사랑마당과 사당마당 사이에 있는 곳으로서 마당의 확실한 구분을 해주는 위치가 된다.

11) 朱南哲, “韓國住宅建築”, 一志社, 1992, 247쪽.
 12) 鄭寅國, “韓國建築意匠”, 一志社, 378쪽.
 13) 朴彥坤, “韓國의 樓”, 대원사, 1993, 9쪽.
 14) 李起聖, “江陵鮮橋莊”, 悅話堂, 1995, 75쪽.
 15) 朱南哲, “韓國住宅建築”, 一志社, 1994, 162쪽.
 16) 趙重根, “韓國의 宗家建築”, 忠北大博論, 1995, 110쪽.